---------------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
진안군의료원 이효진님이 들어왔습니다.
길기태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1:52] 반갑습니다
둘리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승억] [오후 1:59] 반갑십니다
[이승억] [오후 1:59] 이크 습..
오동석님이 들어왔습니다.
Bonobono님이 들어왔습니다.
노영종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15] 반갑습니다
김제흥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사서님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점님이 들어왔습니다.
4712762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21] 반갑습니다
방청객님이 들어왔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푸른자전거님이 들어왔습니다.
Db님이 들어왔습니다.
손영찬님이 들어왔습니다.
문곰님이 들어왔습니다.
y님이 들어왔습니다.
참가자님이 들어왔습니다.
궁금이님이 들어왔습니다.
_님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기록인님이 들어왔습니다.
병아리님이 들어왔습니다.
ㅎㅎ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로우맨 오탁구님이 들어왔습니다.
nsu님이 들어왔습니다.
Na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이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님이 들어왔습니다.
계절님이 들어왔습니다.
박선희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태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님이 들어왔습니다.
유유님이 들어왔습니다.

접니다님이 들어왔습니다.
Rilak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니님이 들어왔습니다.
Qweasd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32] 반갑습니다.
[Rilak] [오후 2:33] 반갑습니다~
[방청객] [오후 2:33] 좋은시도 감사합니다.
기록기록기록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주영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그래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35] 반갑습니다.
조윤선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35] 방청객님 칭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열차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세요!
튜브님이 들어왔습니다.
ㅎㅎ님이 들어왔습니다.
asan님이 들어왔습니다.
신윤섭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38] 반갑습니다.
익명님이 들어왔습니다.
도라에몽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동석] [오후 2:40] 안녕하세요~~ 참석을 못해서 오픈채팅방에 어떤의견 나오나 궁금해서 들어 왔습니다~
Kor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41] 반갑습니다.
콩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41] 오동석님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님이 들어왔습니다.
girok1004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오후 2:42] 오동석님, 환영합니다.
aa님이 들어왔습니다.
이형중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동석] [오후 2:43]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형중] [오후 2:43] 안녕하십니까~
[방장] [오후 2:43] 반갑습니다.
[오동석] [오후 2:43] 안녕하세요 방장님
이가람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44] 모두들 반갑습니다. ㅎㅎ
양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인님이 들어왔습니다.

[도라에몽] [오후 2:45] 반갑습니다
사립대님이 들어왔습니다.
Q님이 들어왔습니다.
신명지님이 들어왔습니다.
기타공공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욱님이 들어왔습니다.
얼음님이 들어왔습니다.
nnn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47] 반갑습니다.
무지님이 들어왔습니다.
zzz님이 들어왔습니다.
주윤경님이 들어왔습니다.
RM님이 들어왔습니다.
기공님이 들어왔습니다.
지방공기업님이 들어왔습니다.
김건우님이 들어왔습니다.
ㅁㅁ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47] 반갑습니다.
슁님이 들어왔습니다.
키햐아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오후 2:48] 들어오신분 모두 환영합니다.
권준현님이 들어왔습니다.
가공님이 들어왔습니다.
Lena님이 들어왔습니다.
jin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정미님이 들어왔습니다.
정해인님이 들어왔습니다.
푸른숲님이 들어왔습니다.
후앙님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처럼님이 들어왔습니다.
Kor님이 나갔습니다.
[푸른숲] [오후 2:49] (이모티콘)
[후앙] [오후 2:50] 안녕하세요
정해인님이 나갔습니다.
12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오후 2:50] 반갑습니다.
pym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양순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님이 들어왔습니다.
aa님이 나갔습니다.
늉늉님이 들어왔습니다.

정해인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 [오후 2:51] 14:30분 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언제 시작하나요?
일정 준수 바랍니다
비 안오네?님이 들어왔습니다.
Jjj님이 들어왔습니다.
aa님이 들어왔습니다.
[접니다] [오후 2:51] 3시 시작 아닌가요?
KS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슬기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담당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오후 2:51] 등록이 14:30분이고 15:00에 시작합니다
[접니다] [오후 2:51] 2시반~3시 등록입니다.
[정해인] [오후 2:51] 에어컨 가동 부탁드립니다
[Rilak] [오후 2:51] 55분까지 접수라고 되어있긴 해요~
대박나자님이 들어왔습니다.
송운대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일면식님이 들어왔습니다.
특수법인님이 들어왔습니다.
[손영찬] [오후 2:52] ㅎㅎ
[비 안오네?] [오후 2:53] 담부턴 실제 행사 시작시간을 알려 줬음 하네요
늦은줄 알고 밥도 안먹고 택시타고 왔슴다...
[손영찬] [오후 2:53] 저런
a priori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오후 2:54] 시장하시겠네요.
Sahad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인님이 들어왔습니다.
주현우/한국중부발전님이 들어왔습니다.
Nel님이 들어왔습니다.
앺흘님이 들어왔습니다.
heeji님이 들어왔습니다.
태안댁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담당자] [오후 2:56] 재난안전현장훈련 기간에 설명회를 하는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하하하님이 들어왔습니다.
ㅎㅎ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2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57] 반갑습니다.
신규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님이 나갔습니다.
오늘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2:59] 사학연금 기록물담당자님 훈련이 겹칠때 얼마나 출장이 어려운지 알고 있으나 국가기록원도 말하자면 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곤란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Eun님이 들어왔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ㅅㄷ님이 들어왔습니다.
구름나옹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01] 반갑습니다.
[구름나옹] [오후 3:01] 반갑습니다.
은방울님이 들어왔습니다.
Archi_x님이 들어왔습니다.
앺흘님이 나갔습니다.
[방장] [오후 3:02] 반갑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대] [오후 3:03] 개인적 민원은 자제합시다.
[처음처럼] [오후 3:03] 원장 안삿말중
[방청객] [오후 3:03] 국가기록원도 긴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오픈채널을 통한 문자중계나 라이브 방송과 같은 채널 확대 시도로 참여가 독려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회사생활참즐겁다님이 들어왔습니다.
신윤섭님이 나갔습니다.
[기공] [오후 3:04] 이런걸 한다는것 자체가 놀랍네요ㅎㅎ
고생 많으십니다.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3:04] 신기신기
[_] [오후 3:04] 카톡 오픈채팅방만으로도 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려요.
[방장] [오후 3:04] 방청객님 그 방법도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니나 기록관리혁신단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회에는 반영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청객] [오후 3:04] 응원합니다
[기록] [오후 3:04] 저도 동감!! 감사합니다.
[방장] [오후 3:05]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대] [오후 3:06] 응원합니다. 불평은 좀 자제합시다.
정부산하기관님이 들어왔습니다.
[Rilak] [오후 3:07] 원장님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서 듣기엔 좀 작아요 ㅠㅠ
수욜날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욜날님이 나갔습니다.
[방장] [오후 3:08] 마이크 볼륨 높였습니다.
[방장] [오후 3:08]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오후 3:09] (민원이나 불평이 아니라 제언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런 시도를 하시는거니깐요)
수욜날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립대] [오후 3:09] 오늘의 목적에 좀 집중합시다.
[방장] [오후 3:10] 민원이나 불평이라 생각안합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대 연구사님의 마음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서울양천구님이 들어왔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유경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12] 반갑습니다.
기록인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양천구] [오후 3:12] 안녕하세요^^
Na님이 들어왔습니다.
한예종님이 들어왔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기타공공기관Z님이 들어왔습니다.
데헿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13] 반갑습니다.
초영님이 들어왔습니다.
Kongdole님이 들어왔습니다.
문서님이 들어왔습니다.
현명님이 들어왔습니다.
피터팬님이 들어왔습니다.
조민석님이 들어왔습니다.
fkdfkdfkd님이 들어왔습니다.
jsm님이 들어왔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14] 모두 반갑습니다.
[fkdfkdfkd] [오후 3:14] 안녕하세요!
직지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14] 넹 반갑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님이 들어왔습니다.
오은정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16] 반갑습니다.
.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님이 들어왔습니다.
박지태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후 3:25] 먼저 이 방의 목적과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죄송합니다 이 대강당의 의자는 조그마한 책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듣고, 특히 필기하기에 매우 힘이 듭니다ㅠㅠ 저번달 모임에서도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부청사에 이 정도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는 다른 강당이나 회의장은 없을까요? 이상 부족한 의견이었습니다..
[구름나옹] [오후 3:26] 폰으로 녹음하시고 집에서 조용히 들어보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구름나옹] [오후 3:27] 녹음시에는 비행기모드 잊지마시구요.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3:27] 좋은 팁 감사드려요
[방장] [오후 3:27] 기록기록기록기록님 맞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나 오늘 공문을 발송한 기관이 700여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곳으로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장] [오후 3:28] 구름나옹임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좀 더 이쁜 목소리 내시라 전달하겠습니다. ^^
[구름나옹] [오후 3:29] 감사합니다.
[푸른숲] [오후 3:29] 기록으로 범위로 넓어지는 방향 좋은것 같아요
[푸른숲] [오후 3:29] 범위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후 3:29] 방장님 감사합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후 3:29] 구름나옹님 감사합니다
[방장] [오후 3:29] 기록기록기록기록님 양해해 주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특수법인] [오후 3:29] 기록물이 기록으로 바뀜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명칭도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구름나옹] [오후 3:30]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배포자료 34페이지의 구체적 내용이 제일 궁금합니다.
[방장] [오후 3:30] 푸른숲님 어찌 보면 그동안 포착하지 못한 기록을 더 잘 기록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데 이렇게 좋다고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라에몽] [오후 3:31] 혹시 기록물 관리요원이 없는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을 폐기할수 없는 건가요
[늉늉] [오후 3:31] 기록 정의에서 더 나아가서 지침에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종류구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기록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게 있는것 같아서요.
[방장] [오후 3:31] 기록물관리전문요원도 명칭에 대해 심히 고민은 하고 있으나 고민이 깊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심 주시기 바랍니다.
[Rilak] [오후 3:32] "기록물"보다는 "기록"으로 표현하는 부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록물, 은 범위가 하드카피로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응원합니다~
[방장] [오후 3:32] 34페이지가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거 잘 알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윤섭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33] 늉늉님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인] [오후 3:33] 기록관리사, 기록연구원, 기록사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명칭을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 안오네?] [오후 3:34] 기록관리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증원요청을 하면 기재부 담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너네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김기록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니] [오후 3:34] 기록물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어떠한지요.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그 자격을 갖춘자를 무조건 두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방장] [오후 3:34] Rilak님 의외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비 안오네?] [오후 3:35]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씁쓸해

집니다
[지방공기업] [오후 3:35] 전문요원자격요건 법령에 있습니다.
[asan] [오후 3:35] 알써
[정해인] [오후 3:35] 법률상의 하여야한다는 조문을 이번 기회에 해야한다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장] [오후 3:35] 정해인님 맞습니다. 심지어 기록관이라고도 하지요. 이번에 제대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이 혁신추진단의 과제이기도 하죠. 잘 알겠습니다.
[하하하] [오후 3:35] 정해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립대] [오후 3:36] 폐기 얘기 나오네요. 사립대는 기록관리 대학평가에 포함 안 시키시면 절대 꿈쩍 안 합니다. 모 대학은 전문요원 없어도 폐기 다 하더라구요. 신고를 안 하면 사실 모르고 현실적으로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게 대학당국은 위법인지 조차도 모르구요.
[방장] [오후 3:36] 비 안오네?님 그런 말을 들을때마다 힘빠지지요.. 혁신으로 큰 동력을 받아야 할텐데요.
[특수법인] [오후 3:37] 기재부에도 연구사가 있을텐데.. 담당자 입에서 그런말이 나온다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지방공기업] [오후 3:37] 기타공공기관도 그런곳 많습니다. 법적절차에 맞게 폐기하도록 국가기록원에서 안내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도라에몽] [오후 3:37] 기록물관리자가없는 공공기관은 자료를 모아두기밖에 못하는건가요? 폐기는 할수없을까요?
[사립대] [오후 3:37] 폐기 관련 공문이 국가기록원에 오면 대학본부는 읽지도 않고 그냥 기록관리 부서에 전달 합니다. 불법인도 모르구요
[정해인] [오후 3:37] 사실적으로 전문요원이 없는 곳은 현재도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오후 3:37] 없어도 합니다.
[구름나옹] [오후 3:38] 사립대 평가심의 가보면 관리자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궁금이] [오후 3:38] 생산의의무가 있다면 생산된 기록을 관리해야할 의무도 당연히 있겠죠..
일단 공무원이 생산토록 해야하는 그행위는 누구의 업무이고 책임인가요?
결국 지침에서 업무보고는 어떤식으로 생산시스템에 등록시켜야하는지 기타공공기관은
[방장] [오후 3:38] 지방공기업님 공문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방장] [오후 3:38] 지금 현실을 알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M] [오후 3:38]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없이 폐기하더라도 전문업체 통해서 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기타공공] [오후 3:38] 기타공공기관도 경영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록관리는 요원합니다.
[궁금이] [오후 3:39] 전문요원이 생산시스템 관리부서와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해야하는데..그 수많은 다양성을 어떻게 지침화시켜 내려보낼수 있을까 고민이네요
[도라에몽] [오후 3:39] 현실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하는부분이 어렵습니다
[구름나옹] [오후 3:40] 경영평가 세부 평가항목이 빨리 공표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방장] [오후 3:40] 강동현님 그런 측면이 있죠..

[대학기록인] [오후 3:40] 생산시스템이 사립대학에도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듯. 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기록관설치, 기록연구사채용, 기록물생산, 보유현황현황조사 및 기록물분류체계구축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하는 방안 등 이런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ㅎ
[도라에몽] [오후 3:40] 그래서 기록물들을 많은공간을 할애하여 보관만하고있습니다
[Na] [오후 3:40] 맞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은 형식적으로 담당자 지정만 해놓은 실정입니다
[기타공공] [오후 3:40] 계약직 또는 경영실적을 위해 시간제로 채용하죠. 파견근로자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오후 3:40] 필요성을 못느끼니 채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것 아닐까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후 3:41] 기록관리기준표 이야기가 나오네요. 각 공사공단, 대학교에서 RMS를 사용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7년 말까지 기록관리기준표를 모두 만들어라 했는데 만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공단에서 근무하고있는데 RMS 도입 예산이 3년째 짤려서 기록관리기준표는 제가 머리 짜내서 일단 임의로 만들어 사전정보공표에 올렸구요 기록물은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뵑붺뷿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립대] [오후 3:41] 저희 대학 얼마전 수십억 들여 생산시스템 바꿨는데요, 절대 안 바꿀겁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일겁니다.
[방장] [오후 3:41] 궁금이님 이번 혁신, 법령 개정의 목표는 생산통제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님의 말씀처럼 다양성을 다 포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도라에몽] [오후 3:41] 기재부에서 컷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는동의하지만 너희가필요해? 이런느낌입니다
[방장] [오후 3:41] 대학기록인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수법인] [오후 3:42] BRM 적용안되는 저희같은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의 포지션이 애매하더라구요
[방청객] [오후 3:42] 근데 2017년까지 무조건 넘어가야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맞는건가요.
[방장] [오후 3:42] 기타 공공기관의 열악한 상황 잘 알겠습니다.
김제흥님이 나갔습니다.
[기타공공] [오후 3:42] 기재부는 정말 컷이죠. 공공기관 인력 증원 승인 해놓고, 예산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실정입니다.
[RM] [오후 3:42] 사람줄땐 기타공공기관이라 미뤄지고 의무가 아니라서 빠지고,우선순위에서 늘밀리죠
[구름나옹] [오후 3:43] 국가기록원과 기재부의 빅딜이 필요하겠네요.
[방장] [오후 3:43] 안그래도기타 공공기관에 BRM을 적용하라는 것이 말도 안됨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꼭 BRM이 아니어도 기록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번 혁신으로 BRM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지] [오후 3:43] 지자체 출연 기관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인근 기관에 물어봐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있는곳이 흔치 않습니다.
[사립대] [오후 3:43] 기념사업 안 하는 사립대학은 기록관리가 아니라 창고관리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방청객] [오후 3:44] 정부산하공공기관 매뉴얼에는 무조건 넘어가야한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방장] [오후 3:44] RM님 안그래도 서러운 기록관리인데 기타 공공기관 분들의 더 험한 노고가 느껴집니다. ㅠ
[도라에몽] [오후 3:44] 기재부는 사람안줄려고하고 기록물은 계속쌓여 답이없을지경이고 폐기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없어서 불가능하고...총체적난국입니다
[오동석] [오후 3:44] 공공기관의 경우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 전체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는 자율성에 맡기고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전문요원의 배치 부분 배치형태부터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사립대] [오후 3:45] 그래도 폐기가 전문요원 통해서 해야한다는 인식이 어딘가요. 공공기록물법? 그게모야? 어쩐지 그런게 있을거 같았어.라는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방장] [오후 3:45] 현실을 알려주시는 말씀, 의견 감사합니다.
[뵑뷁뷿] [오후 3:45] 기관이 크고 전국에 지부가 산재해 있는 경우 전문요원 1,2명이 효율적으로 기록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폐기전문요원이 되기 십상이죠
[방장] [오후 3:46] 오늘 카톡방의 대화는 추진단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정리하여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각 과제 담당자의 답변을 취합하여 이 또한 게시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무지] [오후 3:46]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업무에 대하서는 정규직으로 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침을 내리고 있어 정원을 늘려야하고 예산도 요청해야합니다.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의무에 대해 공감이 이루어져야할것 같습니다
[궁금이] [오후 3:46] 기타공공기관 올해부터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해야하는데..이부분도 이번 재설계에서 언급이 되나요?
정부산하기관님이 나갔습니다.
[사립대] [오후 3:46] 기타공공 중 국공립은 폐기위주, 사립대는 역사기록물 정리 위주죠.
[방장] [오후 3:46] 지금 즉답을 받지 못하셔서 답답하시더라도 의견, 질문 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님이 들어왔습니다.
[이형중] [오후 3:46] 1. 기본적으로 그간 공공기록물법이 법령치고는 너무 과도한 부분까지 규정하여 정작 법령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범위와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야 할 것같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은 오히려 법령의 권위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았음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가 정말 필요하지만 전자기록만을 고려하는 기록관리 체제는 위험합니다 전자기록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기록관리의 효과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록은 행정을 중심으로 생산되기때문에 전자정부시대에 전자기록과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타국에서조차도)에서 비전자기록이 생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전자기록에 집중해서 오히려 기록관리 본연의 목적과 방향성이 흐트려져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3. 공공기관의 인력 예산 문제는 법령개정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프로일겁니다. 법령에서 기록관 위상 제고를 논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4. RM과 AM을 구분하고 중간 단계의 기록관(지역별, 주제별, 유사기능별)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민필요합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위상에 비해 수용가능한 아카이브는 제한적이고 공

공기관을 비롯한 일선기관에서는 RM만으로도 벅찹니다. 중간단계의 AM 전담 기관이 훨씬 다양한 층위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록님이 들어왔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3:47] 기타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아직 걸음마도 못뗀 수준이 많습니다. 이제 막 걸으려는데 뛰어가라고 하면 버겁죠. 이번 혁신을 통해 전반적으로 한단계 발전할수있길 바랍니다.
덥다님이 들어왔습니다.
[RM] [오후 3:47] 앞서 뷁뷁붏님 말씀처럼 배치뿐만 아니라 업무부분에서도 분명 정리가 되어야할거 같습니다. 기관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관리업무만 할수 없으니까요
정부산하기관님이 들어왔습니다.
mijin1126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47] 궁금이님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확답은 담당부서에게 물은 후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 [오후 3:48] 특수법인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해인] [오후 3:48] 평가심의회시 위원구성을 변경 부탁 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에 3인이 내부 2인이 외부입니다. 내부 3인이 폐기 찬성시 폐기해야합니다
[정부산하기관] [오후 3:48] 생산시스템 관리를 기록관리에서 할수 있었음 좋겠어요 기록생산단계부터 관리하려고해도 협조가 너무 안되고 왜 기록관리에서 통제하려고하냐는 반응이라
[방장] [오후 3:48] 이형중님 맞습니다. 여전히 종이기록은 생산되고 있죠. 이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도 감사합니다.
[방장] [오후 3:49] 정해인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에몽] [오후 3:49] 기록관리관없이는 기록을 폐기할수있는방법은 전혀없는것인가요?
[방장] [오후 3:50] 정부산하기관님 맞습니다. 생산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에 이관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부담을 줄뿐이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큐님이 들어왔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3:50] 도라에몽님 아직 답을 못찾으신것 같습니다^^ 전문요원 평가와 평가심의회를 거쳐야합니다.
[방장] [오후 3:50] 도라에몽님 제 짧은 소견으로는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ongdole] [오후 3:51] 문서 클라우드 첨부물 보내면 보안으로 외부망과 내부망 망분리된 기관들은 첨부물 보기가 너무힘듭니다
[정부산하기관] [오후 3:51] 네 기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 법령에 반영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송운대사님이 나갔습니다.
[Rilak] [오후 3:51] 사실 생산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기록물 생산과 관련, 전문요원과 상의하여야한다거나 기록물관리법령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모르십니다.. 생산시스템 구축 혹은 고도화 등을 할 때 전문요원이 한 번쯤 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기록님이 나갔습니다.
[도라에몽] [오후 3:51] 네 답변감사합니다! !

[:)] [오후 3:51] 생산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관리와 별개로 생각하기때문에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이 너무 미비한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혼자 해결할수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방장] [오후 3:52] Kongdole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ㅎㅎ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사정이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3:53] 기타공공기관은 업무시스템에 주사업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생산되는데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연구에 나온것처럼 필요한 기능 모듈이라도 생산시스템에 연계해서 쓸수 있도록 rms 구축에 유연성을 고려해주세요
[방장] [오후 3:53] Rilak님 맞습니다. 처리과 사람들의 기록물법령 인지도 중요한 혁신이겠죠
[방청객] [오후 3:53] 방장님, 하나하나의 작은 의견에도 응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ilak] [오후 3:53] 시스템 구축용역 발주 시, 정보화진흥원인가요? 거기에서 체크리스트를 주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반려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에 한 줄 들어가도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Rilak] [오후 3:53] 일일히 응대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ㅎ
[정부산하기관] [오후 3:53] 공공기관에는 각 업무당 시스템으로 하는 업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스템 만들기전에 기록정보로 관리해야하는 부분에대해 기록관리부서 사전협의절차가 꼭 들어갔음 합니다
[방장] [오후 3:54] 특수법인님 맞습니다. RMS가 기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겠죠.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산하기관] [오후 3:54] 맞습니다 체크리스트 니아같이 저희도 그런요소 반영되면 효과적일거같습니다
[방장] [오후 3:54] 방청객님 알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방장] [오후 3:55] Rilak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이 기록관리 업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콩] [오후 3:55]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록물관련 지표가 들어간다는 언급이 있었던것같은데,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것이 있나요?
ABG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3:56] 콩님이 원하지는 답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얼마전 게시판에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이] [오후 3:56] 콩님 제 기억으로 지난주에 지표안이 왔습니다..평가담당부서에 확인해보세요
[방장] [오후 3:56]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채팅방에서 질문이 들어가 답변을 조만간 들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장] [오후 3:56] 궁금이님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 [오후 3:57] 방장님, 궁금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공] [오후 3:57] 경영평가 비계량 지표 윤리경영부분에 중요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 [오후 3:57] 올해 지표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3:57] 데이터셋과 관련된 조문은 정보화 관련 법령, 지침과 연계되어야 정보화 부서에서도 인지할것같습니다.
[정부산하기관] [오후 3:58] 맞습니다 굳이 기록관리법령을 그분들이 찾아보진 않을테니까요

[방장] [오후 3:58] 가공님 Na님 제가 모르는 부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억] [오후 3:58] 전자기록과장입니다 위에서.말씀해주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인] [오후 3:58] 공인중개사34조법에서는 개업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전문요원들도 신규 배치시 실무 교육 이수 부탁드립니다. 신규 요원인 경우 아무것도 모르기때문 필수 교육 이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_] [오후 3:59] 기타공공기관중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기초과학연구회로부터 기관평가를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가 아닌 기타공공기관 기관평가지표에도 기록관리관련 지표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방장] [오후 3:59] 데이터세트, 전자기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은 여기서 마음껏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억 전자기록관리과장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ㅎㅎㅎㅎㅎ
유유님이 나갔습니다.
[이승억] [오후 3:59] ㅎㅎ
[방장] [오후 3:59] 정해인님 안그래도 처리과 전직원의 교육, 기관장 교육 등 다방면으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Z] [오후 4:00] 정보화부서에 시스템개선이나 기타 사항을 요청드려도 부서의 의욕 혹은 협조의지가 없다면 추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보화부서에서도 움직일만한 제재사항이나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록선진화를위하여] [오후 4:00] 결국 인력 증원 문제는 기관과 기관 사이의 정치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협상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도 더욱 더 정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장] [오후 4:00] _님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게 질문 전달토록하겠습니다.
[_] [오후 4:00] 네 감사합니다.^^
[늉늉] [오후 4:00] 오늘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서
스캔문서를 원본으로 동일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개정되면 원본이 폐기가능하게되더라구요. 이내용을 국가기록원에서는 알고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궁굼합니다.
[방장] [오후 4:01] 전자상거래 인지하고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승억] [오후 4:02] @ 기타공공기관z 님 적극적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법은.없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방장] [오후 4:02] 기록선진화를위하여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님이 나갔습니다.
김제흥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욜날님이 나갔습니다.
[이승억] [오후 4:02] @능능님. 알고이습니다
[이가람] [오후 4:03] 지연처분의 경우 한편으로는 정보공개법과 대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을 심의회에서 지연처분으로 폐기 결정했다하더라도 폐기집행 전까지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기관이나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폐기 결정이 완료되었기때문에 정보부존재나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해인] [오후 4:03]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구성의 경우 대부분 학회 나 교수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조건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경력이나 실무 경험 사람도 배치 부탁드립니다
[방장] [오후 4:03] 늉늉님 관련없어도 기록관리와 관련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법 개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걱정마시고 궁금하신 것은 다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님이 나갔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4:04] 늉늉님 저도 그 부분에대해 열심히 알아봤는데 민간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것 같았어요. 공공기관은 우리 중요기록물 이중보존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이승억] [오후 4:04] @이가람님. 지연처분의 지은 강제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님니다
[이승억] [오후 4:04] 다만
[Kongdole] [오후 4:05] 인력충원없이 법만 강화된다면 기록연구사 더 힘들어 집니다 ~ 인프라 확보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기관에 따라서는 현용 비현용 기록물 업무 구분 하지 않습니다
생산시스템 rms 둘다 관리 합니다
[이승억] [오후 4:05] 폐기로.결정났을때 부존자로 처리되는거는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방장] [오후 4:06] Kongdole님 맞습니다. 인프라가 확보되게 국가기록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법령 개정으로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부랭이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4:08] 부존자 ⇒ 부존재 (오타를 부끄러워 하시는 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정합니다.)
[이승억] [오후 4:09] ㅎㅎ 감사합니다
김기록님이 나갔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4:09] 데이터셋보존기간과 관련해서.. 시스템으로 업무를 한 기록인 데이터셋과 이걸 바탕으로 결재, 출력해서 비전자문서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기록관리기준표와 데이터셋 보존기간은 반드시 일치해야할까요? 둘 중 하나만 보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면 분리하여 운영해도 될까요? 데이터셋과 관련한 조항이 생긴다면 각 기관 정보화담당자와 전문요원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이가람] [오후 4:10] 평가나 보존기간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장기보존기록에 대한 기록물의 재평가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도 안되는 기록들 중 준영구, 영구로 설정된 것들이 있어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기엔 공간문제나 관리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공] [오후 4:10] 성희롱 성폭력 같은 사안은 자격 가진 강사가 전직원대상 필수교육합니다. 비슷한 조치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교육자료보내도 서무직원만보고 부서마다 다른 직원은 협조 안합니다ㅎㅎ처리과 담당자가 몇백권 몇천권씩 보관 기록물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하거나 허위보고 합니다.
문서관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니까요. 이거 기타 공공기관 현실입니다.

나창호님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산하기관] [오후 4:11] 한개이상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보다 해야한다나 기록관내에 규모에따라 몇명의 전문요원은 최소 배치되어야한다고 강제로하지않는이상 인력확보는 쉽지않을텐데요
[이승억] [오후 4:11] @특수법인님.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현재도 디브레인이나 인사시스템이. 결재시스템과 연계 되어.있습니다
[정해인] [오후 4:11] 기공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방장] [오후 4:11] 이가람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승억] [오후 4:12] 결보존기간 이관여부 이관시 링크의.처리.모두 검토 연구 대사밉니다
[방장] [오후 4:12] 기공님 맞습니다.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그럴 것입니다. 교육조항 신경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항으로 그치지 않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공] [오후 4:12]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본사 및 지역본부가 10여개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 규모에 맞는 기록관 인력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름나옹] [오후 4:13] 기관의 감사부서나 중앙부처의 감사부서에 기록전문가인 기록연구사를 필수로 두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장] [오후 4:13] 가공님 인력배치 기준을 다방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름나옹] [오후 4:13] 변호사나 회계사나 노무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들어가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정해인] [오후 4:14] 경영평가시 기록관리 조항을 두는 건 어떻습니까?
[방장] [오후 4:14] 구름나옹님 그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쉽지는 않네요 ^^;;
[이승억] [오후 4:14] 현재 법안에는.링크결재시 결재문서에.등록된걸로 했으나 이경우 물리적 이관시 링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4:14] 업무시스템에서 결재행위가 이뤄진경우 그 기록은 법적으로 진본성을 인정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업무가 그룹웨어 결재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고있고, rms구축도 바로 되기 어렵거든요.
[구름나옹] [오후 4:14] 네^^;;
[정부산하기관] [오후 4:15] 구름나옹님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대부분 기록관리업무가 힘이없는 부서에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경평에 반영되어있으나 기관내에서는 윤리지수에 들어가있어ㅜ사실상 아직까지 신경쓰지않는 분위기입니다
재~호~님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15] 기관 내 기록관리 규정 만들겠다고 보고했더니
규정있으면 직원들 신경쓸일, 의무가 늘어나서 규정 만들지 말라합니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말이지 기관이 100개면 100가지의 사례가 있어요.
부끄러운 어피치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부랭이] [오후 4:15] 참 좋은 교육인것 같은데요 솔직히 기관에 기록관리는 기과낭에 관심도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기관장을 필히 참석하게 하여 교육이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간가요?
[기공] [오후 4:15] 전처럼 인력 확보및 배치공문만 오면 그냥 접수처리하고 끝난다는 사실 아셨으면 합니다. 일반행정직 티오도 기재부승인 얻기어려운데 기록관리인력 줄리가 없으니까요
[RM] [오후 4:15] 여기에서 말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기록물이 다양한 보존기간을 가집니다.
처방전(2년) 간호기록지(5년) 등 사람의 생애주기에 맞지않게 각각 보존기간을 가지며 법에서는 각 기록에 따라 1회 연장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라 폐기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추후 환자가 군문제 등 이유로 본인의 진료기록을 요청하였을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을 하나의시리즈로 본다면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록을 폐기처리하는것이 과연 효율적인 기록관리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15] 접수처리하고 끝. 공감합니다
[이승억] [오후 4:16] @특수법인님. 좀더 사례를 알려주시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오후 4:16] 나부랭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관장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분들의 기록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장] [오후 4:16] 회사생활즐겁다님 기타공공기관은 그래서 더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기록원에서 모든 기관의 사정,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텐데요.. 아직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부랭이] [오후 4:16] 실무자가 열심히 해봐야 기관장이 관심 없으면 솔직히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요
[늉늉] [오후 4:16] 생산현황에 관해서는 별도 개정 사항이 없는건가요?
[익명] [오후 4:16] 정보공개 책임관 제도 등으로 비춰봤을때 책임관 제도는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17] 현황에 대해 알지못하시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쩔수없지요. 결국 기관장이 경영진회의에서 관심을 보여야만 겨우겨우 움직이는것이 현실이니까요
[방장] [오후 4:17] 나부랭이님 그 지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는 원장님도 계시니 적극 개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은 기관장께서 해결해주실걸로 믿습니다. ^^;;
[이승억] [오후 4:17] 업무시스템 결재문서의 진본성은 하자가 없다고 생개됩니다
[구름나옹] [오후 4:17] 청렴,반부패 교육이나 성관련 교육처럼 기록관리 온라인 교육을 관리자필수과정으로 지정하는건 어떨까요.
[사립대] [오후 4:17] @회사생활참즐겁다 접수처리도 행정 총괄하는 본부에서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기록관리 담당부서에 무조건 전달하죠.
[기공] [오후 4:18] 기록관리 일의 범위와 중요성을 모르니 부서장도 서무정도로 생각하니 일벌리지 말라고 하죠ㅎㅎ
[방청객] [오후 4:18] 기관장의 관심에 무조건 기대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관장은 정규직이 아닌데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방장] [오후 4:18] 늉늉님 생산현황도 당연히 개선할 것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기재사항이 맞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견 수렴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18] @사립대
'기록', '문서', '데이터', '저작물' 이런 단어 들어가면 하이패스로 받죠.
[특수법인] [오후 4:18] 이승억과장님. 그러면 업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받은 품의서, 보고서들을 굳이 종이로 출력하는 행위는 생략이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뽕이언니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부랭이] [오후 4:18] 필수로 넣어도 정작 기관장 본인이 관심 없으면 조회때 유인물 나눠주

고 실적따우는 교육이 됩니다
[이승억] [오후 4:19] 그렀습니다
[방장] [오후 4:19] 익명님 책임관제도 우려는 이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건은 그 실패사례가 저희는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하겠죠.. 정말 실효성이 없다면 재검토해야겠죠
[이승억] [오후 4:19] 다만 링크붙임이 골치입니다
[무지] [오후 4:19] 먼저 이렇게 오픈으로 각 기관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어서 좋네요.
멋진 한걸음을 시작하신거 같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법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지자체 예산담당자들도 해당 기관들에 필수적으로 기록물전문관리요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랭이] [오후 4:19] 모든 기괌이 그렇지는 않겠으나 기록은 특히 실적이나 효과가 바로 나타나디 않기에 관심도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방장] [오후 4:20] RM님 법으로 규정된 보존기간이라 정말 어려우시겠네요, 기록인으로서 법적 문제보다 윤리적으로 느끼실 고민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나옹] [오후 4:20] 국어책임관처럼 있는지없는지 모르는 책임관이될까 ... 염려스럽습니다.
[기타공공기관Z] [오후 4:20] 소수인력 기관에 무수한 책임관 지정 요청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총무부서장 한분이 다 맡고 있습니다.
[방장] [오후 4:21] 무지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자체 출현기관도 엄연히 공적인 기록을 생산하는 곳인데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지] [오후 4:21] 공감합니다 감투만 많아지시고..
[나부랭이] [오후 4:21] 책임관보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불러서 교육하고 이슈화를해야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구름나옹] [오후 4:21] 심지어 저는 공공저작물책임관이지만...
아직 개념이 잡히지않습니다...
[방장] [오후 4:22] 구름나옹님 이름으로 봤을때 제일 있으나마나한 책임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대] [오후 4:22] 최근 평생교육사는 어떤정책을 폈는지 모르겠으나 말 안듣는 사립대로 모두 다 필수로 배치했더라구요. 사립대에서 기록연구사는 평생교육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정해인] [오후 4:22] 벌칙이 있어도 기록관리 벌칙은 다 무시합니다. 한번도 벌금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부랭이] [오후 4:22] 온라인 이니 필수 교육은 정말 시간 채우기용입니다
[방장] [오후 4:23] 무지님 "멋진 한걸음"이라 말씀해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기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립대] [오후 4:23] 심지어 온라인 교육은 검수 안하셨는지 왜그리 틀린 내용이 많은지요
[나부랭이] [오후 4:23] 무단폐기도 안걸리면 되지 라는게 일반 직원들 생각입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요
[지방공기업] [오후 4:23] 소수 아닐것 같아요..
[구름나옹] [오후 4:23] 그래도 국가기록원 관리자교육 다녀온 실처장님들은 인식이 좀 바뀌더라구요.
뽕이언니님이 나갔습니다.

[기공] [오후 4:23] 기록관리기준표 만들때도 기록원에 문의하니까 1레벨 2레벨은 생략하라고 하시고 brm도 생략하라하시던데 그럴거면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다른것은 무엇인지...전화로 그럼 기록물분류기준표쓰면 안되냐니까 기록관리기준표를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아서 편법? 운영 중입니다.
[사립대] [오후 4:23] 나부랭이님, 소수라니요? 당연한걸로들 압니다.
[지방공기업] [오후 4:24] 기록관련 관리자교육 바빠서 갈시간 어딨냐고 하시는분들만 봤습니다. 필수교육시간 만들어주실수 없나요 ㅜㅜ
:)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4:24] 사립대님 그 정책을 알고 싶어지네요.. 혹시라도 알게 되시면 알려주세요.. 안그래도 저희가 조직, 인력 확충한 사례를 알아보고있는데 쉽지 않네요.. 혹시라도 공문이나 들으신 게 있으시면 혁신추진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산하기관] [오후 4:24] 많을걸요 그냥 참고자료라면서 자체폐기해서 감사실에 문의한적도 많습니다
[구름나옹] [오후 4:24] 기록원에 임ㅅ는 보존박스 만드는 기계도 구매해보라고 하시고 ^^
[나부랭이] [오후 4:24] 온라인교육 국가기록원 교육도 동일 교육 차수별로 여러번 들어도 인정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네요
[구름나옹] [오후 4:24] 있는
[방장] [오후 4:25] 기공님 말씀대로 그것은 BRM이 아니네요. 자문회의때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립대] [오후 4:25] 방장님 그거는 교육부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거나 관련 법령 알아보기면 쉽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부랭이] [오후 4:25] 솔직히 기관장님이 관심만 있다면 실무자는 더 열심히 합니다만 기관장님들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방장] [오후 4:26] 사립대님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사립대] [오후 4:26] 저도 관심있으니 한 번 알아보고 글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장] [오후 4:27] 나부랭이님 맞습니다. 기관장님의 관심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춤추게 할 수 있을텐데요...
[방장] [오후 4:27] 사립대님 감사합니다.
[Q] [오후 4:27] 각 기관 기관장을 의무적 참여로 불러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할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지요. 솔직히 책임관이나 담당자 교육은 기관내에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을듯 하네요.
[Kongdole] [오후 4:28] 워라벨 ~ 업무혁신 차원으로 문서 간소화도 추진 되고 있습니다 ~ 원본 보관 잘될지 의문 입니다
주윤경님이 나갔습니다.
신윤섭님이 나갔습니다.
[나부랭이] [오후 4:28] 기관에 배치된 분들 중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임기제나 시간 선택제인 경우 열심히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면 그기관에 기록물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오동석] [오후 4:28] 여러 선생님들 의견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네요 일단 소통공간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의미에서 이 오픈채팅방은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주제를 정해 오픈 채팅방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

면 합니다
더불어 혁신추진단 게시판도 자유게시판 형태는 유지하고 주제별로 나누어 거기서 토론할 수 있게끔 개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지만 참여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 게시판을 혁신과제별로 나누어서 운영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김찬중님이 들어왔습니다.
[비 안오네?] [오후 4:28] 경평기준 적용하면 기관장이 관심은 갖겠지만...말장난 보고서를 위한 허풍실적으로 채워질걸 생각하면 비추입니다
[가공] [오후 4:29] 직급과 관계없이 기록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급이 높으면 설득을 할수있다? 이거 보다는 법령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기공] [오후 4:29] 기관 해당 직원이 내부직원은 교육하는 방식이면 효과 없을것 같습니다.
[방장] [오후 4:29] Q님 기관장 교육이수는 책무로 명시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오후 4:29] 지금 질문자분 속시원하네요.
[기록] [오후 4:29] 저도요 속시원합니다
기록엘모님이 들어왔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4:29] 일정기간 채팅방 유지에 찬성합니다. 기관1인 담당자로 우물안개구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산하기관] [오후 4:29] 속시원함
[정부산하기관] [오후 4:29] 강제조항이 먹힙니다
[기록] [오후 4:29] 기관장 교육 제제 강추예요
[방청객] [오후 4:30] 그래도 기관장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ㅋㅋㅋ
[나부랭이] [오후 4:30] 강제해야 따릅니다 공공기관은
[비 안오네?] [오후 4:30] 그냥 법 위반시 담당자가 아니라 기관에 벌금 십억씩 때리는게 좋을듯 아님 기관장 구속시키거나...^^;
이형중님이 나갔습니다.
김찬중님이 나갔습니다.
[오동석] [오후 4:30] 그런사례 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교육 기관장 꼭 받게끔 되어 있을꺼에요~
[특수법인] [오후 4:30] 이번 인사비리 관련된 감사 시행후 적발기관에 경고장이 왔었죠.
[방장] [오후 4:31] 오동석님 국가기록원의 혁신게시판은 리모델링을 해야 원하시는 게시판을 만들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현재의 게시판에 활발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방청객] [오후 4:31] 지속적인 채널 운영에 한표드립니다. 다만 일일히 이렇게 국가기록원측에서 민원처럼 대응해주시는것보다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랭이] [오후 4:31]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네요
[기공] [오후 4:31] 기록원이 솔직히 정부산하기관에 제대로 실태조사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공문발송하는거로 퉁치지마시고요.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31]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기록원에서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것 같아서 마음은 아프네요
[기록] [오후 4:31] 질문자님 말씀맞아요 법만 개정해선안되구요 실질적인 제재와 통제가 필

요합니다
[김사서] [오후 4:31] 성폭력 성희롱.. 폭력예방은 법정의무교육이라 공공기관은 전직원필수이수사항입니다(기관장 필참)
[방장] [오후 4:31] 기공님의 말씀이 아프네요... 개선되도록 전달하ㅐㅆ습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후 4:31] 회사생활참즐겁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ㅠㅠ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32] 부 급이었으면 다들 이렇게 무시 안할텐데...ㅠㅠ
[이소연] [오후 4:33] 원장이 갑자기 뛰어들면 다 놀라 나가시려나요? 성폭력 성희롱 교육이 의무화되는데 삼십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것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사건이 있고서야 가능해졌죠. 기록관리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타공공] [오후 4:34]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방,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기록관리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후 4:34] 이번에 강하게 법률로 제정되면 좋겠지만 비밀기록물 개정이 막혔었다는 설명처럼 국가기록원이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ㅠㅠ 법제처에서도 안받아주면 그만이니 답답하고 슬프네요
[방청객] [오후 4:36] 꼭 강력한 제도와 법률이 우리에게 달콤한 상황을 줄것이라는 생각도 의심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기록인] [오후 4:37] 존경하옵는 원장님!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사람 특히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총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국총장협의회 등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님이 나갔습니다.
[기공] [오후 4:37] 개정할때 전국에 부서를 두고있는 공공기관들도 고려를 해주심이..이관 후 폐기하게 되어있는데 이관 비용 때문에 파쇄업체와 연결해서 실물을 이관하지않고 목록으로 심의거쳐서 진행하는곳도 있을것 같습니다.

[나부랭이] [오후 4:37] 기록물도 은근히 이수가 많지않았나요 한수원이라던지.... 솔직히 기록물은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인데 사고만 터지면 해당 언구사 잘못으로 생각되는것도 기관에 관심이 없어서라 행각합니다
[기타공공] [오후 4:38] 기타공공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산하기관들은 중앙부처가 정책결정을 하면 대부분 산하기관이 실행을 합니다. 결국 중앙부처에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기록만 남고 실행, 결과의 기록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조금 정산 자료 정도?) 산하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정책결정 과정만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이소연] [오후 4:38] 그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전국총장협의회의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오후 4:38] 그 법률이라도 없으면 1도 움직일 생각조차 없으신게 기관의 높은분들이 많습니다.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예외조항이 너무 많았어요. 스캔했는데 폐기하면 왜안되냐 하시는분들 아직 엄청 많으십니다
[방청객] [오후 4:39] 혁신의 내용에는 외적(환경)인 쇄신이 대부분이고, 우리 내적인 쇄신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랭이] [오후 4:39] 교육을 의무화 할 수 없다면 기관장 회의때 이런게 중요하다고 말을 좀 해주셨음하네요 기관장들 연합히기 많으니 최소한 그것만이라 해주셨음합니더
[나창호] [오후 4:39] 원장님 과거에는 국립대 총장협의회나 사립대총장 협의회에서 기록관리 설명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소연] [오후 4:39]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공] [오후 4:40] 그리고 산하기관은 상급기관 주무부처에서 안쪼으면 안합니다. 국감 같은 데라도 집어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타공공] [오후 4:40] 기공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장] [오후 4:41] 나부랭이님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생기면 안되겠지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책임이 아님을... 기관장 책임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늉늉] [오후 4:41] 기록관리 교육의 경우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눠서 필수교육의 경우 공문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필수참석으로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당장 필요도하지 않은 교육 왜 들으러가냐는 식이셔서...듣고싶은 교육도 못들으러가네요ㅜㅜ
참여자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장] [오후 4:41] 늉늉님 알겠습니다.
[기록] [오후 4:41] 맞아요 감사지적받아야 그것만 겨우 개선하려고하죠
[나부랭이] [오후 4:41] 윗분 의견 동의합니다
[기공] [오후 4:41] 지방공기업님 동의합니다. 아직 민간인 서명수령때문에 비전자문서가 많은데... 스캔문서 폐기...시도때도 없이 문의옵니다.
[대학기록인] [오후 4:42] 원장님! 사실 사립대학의 현실정은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쁘신지는 잘 알고있지만 총장협의회에 꼭 참석해주셨으면합니다.
[나부랭이] [오후 4:42] 관외로 가는. ㅜㄹ장에 필요성을 모르시는분이 많으세요
[Q] [오후 4:42] 죄송한데. 기록물관리요원 의무채용 입니까? 소규모 기관들은 기존 업무에 기록물관리 업무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반감이 있습니다. 별도 인센티브는 없는데 업무와 책임만 강조되니까요. 예산편성기준에 기록물 관리요원에 대한 의무적 별도 수당도 신설을 고려해 주십시요.
ㅎㅎ님이 나갔습니다.
[기록물담당자] [오후 4:43] 정부산하 기관 이하 대학 등 계약직으로 뽑아서 한시적으로 쓰고 버리는데
[나부랭이] [오후 4:43] 폐기하려고 뽀는공우가 많습니다
[기록물담당자] [오후 4:43] 계약만료되어서 다시 계약하고 연봉은 그대로인 상황에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43] 채용되면 폐기 언제하냐고 전화오죠
[기록물담당자] [오후 4:44] 의무와 사명감만 가지고 하라는것는 아닌듯합니다
[나부랭이] [오후 4:44] 기록연구사=ㅍ메기하는사람
[기공] [오후 4:44] 폐기하려고 뽑아놓고 기록물현황조사할 인력 예산도 안주고 무턱대고 폐기하라고 하구요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44] 기록물 폐기하면 올해 KPI 다 채우는거라고 말하더군요 ㅋㅋ 짜증
[지방공기업] [오후 4:45] 하다못해 공익요원관리담당자 교육도 기관당 1인이상 담당자 필참으로 공문이 와서 그 교육은 아무 이견없이 다녀왔는데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기록관리 교육은

가려면 눈치를 봐야합니다..
[나창호] [오후 4:45] #Q. 현재 법률상 생산량 천권 보존향 5천권이상인 기관은 의무배치 입니다. 개정안에는 모든 기관이 기록관 설치대상이며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좀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부랭이] [오후 4:45] 기록이 중요할땐 사건사고 터져서 자료 찾을때 폐기할때 외부에서 실적같은거 받아 올때 뿐입니다
[방청객] [오후 4:45] 공공기관 중에 인력 증원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립대] [오후 4:45] 이제는 전문요원 파견직까지 등장했습니다.
[방장] [오후 4:46] 방청객님 좋은 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 [오후 4:46] 파견직이 폐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참여자] [오후 4:46] 파견직 불가능합니다.
[나부랭이] [오후 4:46] 불가요
[정해인] [오후 4:46] 군기관 특례에 대한 내용 삭제 요청합니다
Na님이 나갔습니다.
[기타공공] [오후 4:46] 사실 소규모 산하기관들은 정원 증원도 힘든데다, 예산 반영이 안되면..도로아미타불입니다.
[기타공공] [오후 4:47] 파견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라 불가입니다.
[참여자] [오후 4:47] 군기관 특례가 문제인가요?
[구름나옹] [오후 4:47] 정부산하공공기관 인력증원된 곳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공] [오후 4:47] 꼭 혁신도시 순회 오시면
[기공] [오후 4:47] 각 기관 문서고 둘러보세요
[조윤선] [오후 4:47] 진지한 논의 중에 우리 공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고민이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남겨봅니다. 우리공사에 입사하여 4년째 시스템 개발하고 기준표 만들어 홈피에 게시하고 직원들에게 알리고 매년 폐기하고... 기존의 기록관리체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뭔가 뒤집어 엎는다면 어찌할지 걱정입니다.
법 개정 전에 가능하면 전처럼 신청받던가 해서 기관방문 컨설팅 해주셨음 합니다. 우리 공사의 고민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1인입니다.
[기공] [오후 4:47] 문서창고입니다
[나창호] [오후 4:47] 군기관 특례조항은 각군 밑에 사단급에 설치해야 하는 기록관에 인력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_] [오후 4:48]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고 기관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정규인력을 증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공공] [오후 4:49] 직접관리기관이 되어야 하는군요. 결국은..그 많은 소규모 산하기관들은 어쩔~
[얼음] [오후 4:49] 좋은 사례가 있으면 널리알려주는 채널도 있었으면 합니다
Jhw30님이 나갔습니다.
[정해인] [오후 4:49] 의견 회신을 공문 말고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장] [오후 4:49] 조윤선님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공공기관에 맞지 않는 BRM을 적용

하라는 말을 더이상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_] [오후 4:49] 예산은 '기록관리사업'을 신규 편성했고 의외로(?) 기재부 에서 일부 삭감한 금액으로 승인했습니다.
[늉늉] [오후 4:49] 한가지 건의사항인데요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관리컨설팅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현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미배치기관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배치기관도 1년 이내든 기한을 좀 정해서 받을 수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아요. 처음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기공] [오후 4:49] 저희끼리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신세한탄합니다
[푸른숲] [오후 4:49] 스캔본 원본인정은 혹시 안되려나요? 꼭 좀 검토해주세요!!!!
[정해인] [오후 4:49] 공문으로 보내면 결재를 안 해줍니다
[정해인] [오후 4:50] 어디 기관 망신 시키는 일을 하냐면서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50]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원본을 폐기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푸른숲] [오후 4:50] 그리고 ams표준도 빨리 정립 되었으면합니다.
[나창호] [오후 4:50] 위 파견직은 전문요원이라 보지 않습니다. 혹시아도 그런 자리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건 안될까요? 몇년전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지방 9급에 합격했다 변호사 집단 반발로 임요을 포기했는데 우리도 그런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게 아닐까요
[푸른숲] [오후 4:51] 거의 대부분 스캔하고 원본은 낱장으로 돌아다녀서 점검때도 너무 힘들어요
[방장] [오후 4:51] 늉늉님 건의사항 원장님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
[_] [오후 4:51]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나창호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푸른숲] [오후 4:52] 요새 스캔도 마이크로필름 못지않은 품질이 많을텐데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오후 4:52] 현재 컨설팅 존재하지 않나요?
김종욱님이 나갔습니다.
[zzz] [오후 4:52] 지방공기업입니다 경영평가에 반영되면서 업무분장에 갑자기 기록물관련이 추가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교육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도 이해못해서 답답합니다 ㅜ
[늉늉] [오후 4:52] 전문요원 미배치기관만 해주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푸른숲] [오후 4:52] 국가기록원에서 점검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수법인] [오후 4:52] 컨설팅 수요는 많은데 기관 눈치도 보이고 기록원 자원도 부족하겠죠..
[푸른숲] [오후 4:52] 기록원 인력 충원도 필요하시겠네요
[기록물담당자] [오후 4:52] 전문요원이라는 말이라도 안 쓰면 좋겠습니다
[기록] [오후 4:52] 컨설팅 얼마전 여쭤보니 후반기정도에 하신다고 했던거같아요
[기록물담당자] [오후 4:53] 차리리 기록물담당자가 더 낫습니다
[나창호] [오후 4:53] 인력배치는 직덥기관이 되어.평가를 받아야만 배치하는 건 아닐겁니다. 지난 경험상 지방이전 등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전환이 있을때 전문요원 배치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늉늉] [오후 4:53] 네네
[푸른숲] [오후 4:53] 법적용어로 기록연구사도 괜찮지않을까요?
[방청객] [오후 4:53] @기록물담당자 님 아까 그 명칭에 관해서는 방장님께서 다양한 의견달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물담당자] [오후 4:53] 연구사는 공무원만 사용합니다
[푸른숲] [오후 4:53] 대학평가에도 기록관리분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인] [오후 4:53] 기록전문요원이 기록전담부서에 없고 지사나 지점등 타 업무를 해도 되나요?
[푸른숲] [오후 4:54] 그래서 법으로 바꾸자는거죠 요원 명칭을
[기공] [오후 4:54] 그리고 수기결재 강제 금지 좀...전자결재시스템이 있는데 어른들이셔서 그런지 싸인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기록물담당자] [오후 4:54] 정부산하기관은 기록물관리사나 담당자가 차라리 나을지도요
[기록물담당자] [오후 4:54] 자격증 내도 자격수당도 없는데
[얼음] [오후 4:54] 생산시스템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인력 지원없이 혼자 생산시스템도 하고 기록관리 등등 업무하기가 넘 벅찹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도 같이 묶어 팀 만드는 시도도 하시는거같은데 정말 개인정보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전산시스템 접근도 못하는 제가 그쪽 일까지 같이 책임지고 계획세우고 유노출에 대한 위험도 많고 버겁습니다. 개인정보 같이 묶는 것도 많은 고려 후에 엮었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는 절대로 같이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기록물담당자] [오후 4:54] 계약직은 수당이 연봉에 포함됩니다
[할로우맨 오탁구] [오후 4:54] 기록관리기관방문교육도조건없이좀많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신청했는데조건에안맞는다고하더군요
[나창호] [오후 4:55] # 정해인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부서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해야겠죠. 타 부서에서 다른 일을 하다 폐기만 하면 전문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Kongdole] [오후 4:55] 기록연구사 중앙부처에서 국립대로 파견한 기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해인] [오후 4:55] 대학원 경력인정 부탁 드립니다.
[방장] [오후 4:55] 자격수당은 게시판에도 올라와서 열심히 관련 조항과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았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만간 그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방청객] [오후 4:55] 공공기관마다 그 예산구조는 다르겠죠
[가공] [오후 4:55]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에서는 수기결재문서를 생산하지 못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수기서면결재후 문서번호만 시스템에서 따고 원본을 등록하지 않아 기관 중요기록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타공공기관Z] [오후 4:55] 산하기관은 RMS는 커녕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조차 어려운데 법은 자꾸 단위과제 위주로 개정하고 있어, 적용하기 힘듭니다. 지향점임은 공감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작은기관환경도 고려해서 유예기간이나 배려방안 부탁드립니다
[가공] [오후 4:56] 또한 수기서면결재의 경우 맨 앞장에만 서명하기 때문에 결재문서의 내용을 결재후에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김사서] [오후 4:56] 기타공공기관z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장] [오후 4:56] 기타공공기관Z님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생활참즐겁다] [오후 4:56] 데이터 표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행안부랑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품질, 표준화를 위해 ISO에 의견조회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빅데이터의 요건중 '진실성'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선 기록원에서도 발을 집어넣을만한 사항

인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사리언스 쪽으로 저희같은 기록인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겠지요. 준비해야할만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Won-Ki, Hong님이 들어왔습니다.
[mijin1126] [오후 4:57] 기록관이라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ㅜ생각합니다. 사실 공공기관 중에는 전문요원만 뽑아놓고 알아서 하라는 경우도 많아서 이관을 받지 못해 이관연장신청서로 근근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고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니 기조실은 안만들면 벌칙으로 처벌되냐고 그래야 공간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특수법인] [오후 4:57] 타부서에서 폐기한다고 전문요원으로 인정안한다는 법규가 없으니 순환보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자] [오후 4:58] 타부서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참여자] [오후 4:58] 기록물관리부서에 속한 자만 가능합니다.
[방장] [오후 4:58] mijin1126님 기록관에 조직+인력+시설을 아우르는 정의가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Z] [오후 4:58] 폐기사업 없을때는 타부서 있다가 폐기사업시에만 돌아오는 변칙도 들어봤네요
[정해인] [오후 4:58] 타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파견형식으로 기관에서는 나오는데
[사립대] [오후 4:59] 저희 기관은 본부 총무에서 무단폐기 하다가 제가 자격증 취득하니 '이제 마음편히 폐기할게~' 라는 말 들었습니다.
[푸른숲] [오후 4:59] 그리고 기록물양별로 공간 뿐만아니라 필요 인력수도 주면 좋을것같아요
[기록물담당자] [오후 4:59] 현 배치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도 좀 해줘야 할건데
[얼음] [오후 4:59] 아까 질문자 말씀중 부서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몇년 지나면 조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그리고 모든 부서를 근무해본 사람이 조직을 잘 알아 기록관리도 잘한다는 논리이면 사실 행정직이 기록관리를 가장 잘할 것입니다.
[나창호] [오후 5:00] 폐기를 맘 편하게 하는게 아니라 심의회를 통해 불필요한 폐기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방장] [오후 5:00] 오늘 주신 의견들 공유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오후 5:00] 우리 기록물전문요원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정해인] [오후 5:00] 이런 오프창이
참여자님이 나갔습니다.
[방장] [오후 5:00] 긴시간 불편하게 앉아계시며 눈귀 여시고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인] [오후 5:01] 상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청객] [오후 5:01] 고생하셨습니다
[방장] [오후 5:01]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대] [오후 5:01] @나창호 심의회는 해야하는지도 모릅니다
[방장] [오후 5:02] 저 KTX 종착역에서 나오는 음악이 Happiness입니다. 고단한 기록관리 하루하루 보내시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익명] [오후 5:03] 오픈 채팅창 등 소통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원장님 이하 기록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도 유익했습니다 현업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청객] [오후 5:03] DJ방장님이시네요, 수고하세요:D

[방장] [오후 5:04] 감사합니다.
[무지] [오후 5:04]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공기관Z] [오후 5:05] 감사합니다. 많은분들 의견주셨듯이, 기타공공기관분들은 서로 배치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워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확대 되길 바랍니다.(국가기록원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산하기타공공기관 전문요원 배치기관 현황표가 정리.배포가능할까요?)다들 좋은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법인] [오후 5:07] 자리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억과장님 바쁜신줄 아오나 조만간 별도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한 관심과 답변 감사합니다.
노영종님이 나갔습니다.
길기태님이 나갔습니다.
가공님이 나갔습니다.
[이승억] [오후 5:17] @특수법인님 예 환영입니다
김선교님이 들어왔습니다.
pym님이 나갔습니다.
조윤선님이 나갔습니다.
Nel님이 나갔습니다.
피터팬님이 나갔습니다.
_님이 나갔습니다.
익명님이 나갔습니다.
김선교님이 나갔습니다.
기록님이 들어왔습니다.
기록인님이 나갔습니다.
구름나옹님이 나갔습니다.
[기록물담당자] [오후 5:45]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하시죠 언젠가 저희도 좋은 날이 오겠죠
접니다님이 나갔습니다.
Qweasd님이 나갔습니다.
비 안오네?님이 나갔습니다.
재~호~님이 나갔습니다.
츄츄루츄츄님이 들어왔습니다.
두힘님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점님이 나갔습니다.
두힘님이 나갔습니다.
a priori님이 나갔습니다.
---------------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
서울양천구님이 나갔습니다.
ㅇㅇ님이 들어왔습니다.
Q님이 나갔습니다.
용마루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립대] [오전 9:32]어제 평생교육원의 경우 평생교육사의 배치가 제일 말 안듣는다는 사립대까지 정직원으로 제대로 배치되었는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 드

렸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경우, 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중앙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평생교육사 미배치 점수를 감점 받으며, 이럴 경우 평생교육원에서 운행하는 학점은행제 학생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 안 듣는 사립대학도 모두 평생교육사를 정직원 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도 대학평가에 도서관이 포함되고 대학평가 점수에 따라 각종 제재(학생정원 조정, 지원금 감축)가 철저하게 실행됨에 따라 위축이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의 경우 대학평가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서 박물관을 없애거나 학예연구사를 대부분 계약직으로 돌리고 축소시키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강력한 법규정과 실행 시 이에 대한 반대급부 혜택, 철저한 관리 감독 실행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